

“ 반박할 수 없는 질문들 ”

■ 이종윤 원로목사

사람들은 최고로 기쁠 때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 미치겠다 또는 죽겠다,는 말로 표현한다. 최고로 기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창세전에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니 무슨 말 하리요’라고 했다. 그래서 사도는 ‘다섯 가지 반박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짐으로 성도의 믿음을 확실히 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는 많다. 신학적으로는 세상과 정욕을 쫓는 육신 그리고 악마 사탄이 우리의 원수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은 죄의 씨를 품고 있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덤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밖에서 오는 원수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다. 바울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에 계시다면 우리를 넘어뜨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떤 공격과 비난과 유혹이 와도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이길 것이라 한다.

둘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죄가 많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확신의 표현이다. 시험을 당해도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친구가 필요할 때 나의 참 친구가 되어 주시고 삶의 방향과 방법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도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훈계하신다.(시 32:8)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대신 소망과 환희를 주신다.

셋째,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한 이를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이는 불에 그슬린 나무라 하시며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를 더러운 자라 하겠는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정죄할 자가 없으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한다.

넷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한 것과 비슷하지만 실은 다르다. 예수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의 태도가 바뀔 수 있겠는가 물으면서 누가 정죄하리요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 위해 간구하신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보혜사로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로 하늘에서 자신의 보혈을 보이시면서 다시 저주가 없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 지상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 같은 우리를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다섯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등산가의 등 뒤의 밧줄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 안전을 보장받게 했다는 것이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하는 적들이다.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야 할 이유가 있다.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이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끌어내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게 한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울은 마침내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에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실체를 복음이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확실한 것은 없다. 반박할 수 없는 이 같은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제1300호] 2011년 12월 10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enior Deaconess Ae Soon J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15:12-19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Resurrection of the Dead" Rev. Euichang Kim
* Hymn	286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선 교 사 전광혜(서아사), 이은준(해정, 양재성)이한주(카히스탄), 이경연,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해정, 우상식)김경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혜(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상, 바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보이), 필리몬, 프란스또, 수레리, 수비쓰, 알로롱,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롱, 수련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민(홍성인)필리위, 이재물(백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백재연)미디카(스카리)
--

	<p>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p>
--	--

“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

■ **창 1:1-3, 마 18:19~20, 요 16:14, 히 10:24~25**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보다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 숫자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징이라면, 우리는 마 18:20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 18:20은 주님의 뜻이 담긴 귀한 교회론을 말씀합니다.

1. 제도에 관하여
 교회 안에는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같이 다양성 속의 단체, 혹은 단체 속의 일체는 인증 제도, 가족제도, 정치제도, 교회 제도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배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 인격(three persons)이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세 인격이 영원히, 필연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므로 다른 방법으로는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분이십니다. 그 분은 절대적으로 초월적 존재시요, 절대적으로 독특한 분이시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신 4:35)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제도와의 연결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은혜라는 탁월한 제도로 세워진 곳입니다. 세상의 하나님 백성의 모임은 그리스도가 만드신 제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목적을 추진, 완성시키는 일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모이게 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4-25)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충만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한 날에, 심판의 날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리스도와 가깝게 완전한 연합이 될 때에 더 이상의 불완전한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에는 어떤 사람이 모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권위와 제도에 동의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믿음과 고백에서 한 몸이 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을 지켜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총만으로 총만케 된 사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모입니다.

2. 요구 조건에 관하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 16:14). 여기서 그는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며,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며, 이해해야 하며, 무엇보다 영접을 해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3. 하나님과의 약속을 엄숙히 구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두, 세 사람 모였다고 해서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만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왕 중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분,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이 오시는 자리라면 우리는 최선의 준비를 해서 그 분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분과의 모임뿐 아니라, 그 분의 증인과의 약속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왕이시고 불가변적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항상 셋 되신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맺는 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엡 1:21).
 이 은혜가 주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서울교회의 모든 모임을 감사함으로 더욱 힘써 행하며 주님을 이 세상에서 영접할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기쁘게 만나는 천국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종윤 원로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오광환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최광성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인 도 자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57: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3(2)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시 115(구주강림1)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104(104)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 95:1-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 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무릎을 꿇는자의 기쁨” 안영로 목사
* 찬 송 Hymn	73(73)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롬 13:1-2 인 도 자
찬 송	95(82) 다 합 께
기 도	서은석 집사
성 경	갈 3:23-2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설 교 자
* 찬 송	546(399)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조정옥 권사
성 경	삼하 7:1-1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 교구위원회 12월 모임(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 1일(주) 3부 예배 후 104호
- 정기 당회 / 4일(수) 수요일예배 후 104호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세례식 신청 마감 / 12월 세례식이 12월 15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사무국): 12월 1일(주)까지 문답총정리는 12월 8일(주) 오후 1시에 105호실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12월 8일(주) 오후 2시 105호실에서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례교육부 010-7743-3223으로 문의바람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 의료 상담 / 이번 주 상담은 김동건(치과), 오병호(피부과)입니다. (의료상담 오전 10시-11시)
다음 주 상담은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전화 예약 010-2728-5939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
- 오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안영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다음 주일(12.8)에는 새해 섬김위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받은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영로 목사 소개
장로회 호남신학대학 졸업, 장신대 신대원(M.P.S., M.Min), Columbia 목사 계속교육 수료
Louisiana침례교대학(명예문학박사), Florida Beacon성서대학(명예신학박사)
Howard대학교(D.Min), 한남대(명예철학박사), 장신대(명예신학박사)
광주 수피아여고 교목실장, 광주 서남교회 은퇴목사, 예장(통합)총회 총회장(90회기)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909명	248명	192명	1,349명	123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1/24)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1월24일	헌 금	75,727,800	
	말씀봉사비		18,010,000
	찬양대사례		13,402,000
	급 여		33,084,000
	교회학교사례		10,870,000
	예 수 금	204,380	
	성 레 비	111,000	
	구 제 비	400,000	
	출 판 비	250,000	
	인 건 비	6,122,600	
	복리후생비	419,550	
	통 신 비	308,460	
	수도광열비	956,200	
	차량유지비	694,220	
	소모품비	504,037	
	수선유지비	1,543,590	
	식당운영비	1,766,150	
	합 계	75,727,800	88,646,187